



돌아온 거리퍼레이드... 여름 수놓을 금빛 선율

제27회 제주국제관악제
3년만에 정상화 기대감

올 여름 시즌 관악축제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9개국 2600여명 참가

관악·타악 콩쿠르 대면 진행
영국 코리밴드 첫 무대 눈길



12일 아스타호텔에서 제27회 제주국제관악제&제17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가 열렸다.

재확산 우려감 속 코로나19는 여전히 변수지만, 한 여름 제주 섬을 금빛 선율로 수놓는 '섬 그 바람의 울림, 제주국제관악제'는 일상 회복과 함께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관악제 무대에 많은 없지만 국외팀이 오르며, 관악·타악콩쿠르도 대면으로 진행된다. 중단됐던 8월 15일 문예회관에서부터 제주해변공연까지의 관악 시가페레이드도 3년만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2022

제27회 제주국제관악제&제17회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 기자간담회 및 설명회에서 조직위원회는 “올해 관악축제의 여름 시즌에는 국내외의 12개국 60팀 2500명(외국 4팀 160명), 관악콩쿠르에는 11개국 113명, 심사위원은 14개국 28명이 참여해, 총 19개국 2641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당초엔 올해 초 코로나 상황 완화로 국외 참가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국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항공유가 및 여행 비용 증가로 참가자

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2020년부터 시즌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 올 여름시즌(8월 7~16일)은 개막공연과 마에스트로 콘서트 및 관악·타악콩쿠르, 청소년 및 동호인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채워지는 관악축제로 개최된다.

전문성을 내세운 가을시즌(11월 17~22일)은 관악작곡콩쿠르 및 전문앙상블 공연이 주다. 특히 올해는 세계토속관악공연과 'Jazz in Jeju'가 새롭게 선보인다.

세계 정상의 관악단인 정통 금관악기만으로 구성된 영국 코리밴드를 비롯 소리꾼 고영렬과 테너 존노 등이 출연하는 여름시즌 개막공연(8월 8일, 제주아트센터)은 기대를 모은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엔 특별초청으로 제주를 찾는 코리밴드는 제주는 물론 아시아지역에서 처음 공연을 갖는다. 코리밴드는 9일 제주문예회관, 11일 서귀포 예술의전당 무대 등에도 올라 도민과 만난다.

광복절인 8월 15일 시가페레이드에 이어 제주해변공연장에서 펼쳐질 경축음악회는 대규모 연합관악단과 연합합창단의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이와함께 올해 제17회 관악·타악콩쿠르(8월 9~16일)는 유포니움, 베이스 트롬본, 튜바, 타악기 등 4개 부문으로 치러진다.

무대행사로오는 마스터클래스(8월 11~14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와 마칭밴드 공연, 악기 전시·수리(8월 9~15일, 문예회관 로비)등이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올해 두 작품 무대

30일 첫 소극장 공연 '비밀결혼'
8월 5~6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서귀포에 솔의전당 대표 브랜드 공연인 '제7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에는 두 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엔 제주도내 성악가들이 펼치는 첫 소극장 공연이 관객들과 만난다.

올해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은 제주 출신 성악가 김수정(글로벌오페라 단장) 예술감독을 필두로 대한민국 최정상급 오페라 스타들과 도내 성악가, 제주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오는 30일 오후 3시와 7시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코믹 오페라 '비밀결혼'은 제

주특별자치도성악협회가 주관해 가족 사이의 사랑과 비밀, 분노 등을 익살스럽게 그린다.

8월 5일(오후 7시 30분)과 6일(오후 3시) 대극장에서는 로시니의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코미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공연된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는 동네에서 만물박사로 불릴 만큼 뛰어난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로지나에게 사랑에 빠진 알바비바 백작의 조력자로 나서면서 유쾌한 웃음 가득한 18세기식 로맨틱 스토리다.

관람료는 대극장 1층 2만5000원, 2층 2만원, 소극장 전석 1만원이며 서귀포시 E-티켓(일반 예매 20일 오전 10시부터)을 통해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네 명의 작가가 풀어놓는 '가족' 이야기

새탕라움서 '모던 패밀리' 전

제주시 아트스페이스 새탕라움에서 흥민기, 손운원, 박유진, 고안철 등 네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모던 패밀리' 전시가 진행 중이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각자의 가족을 배경으로 창작한 영상 및 사운드,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흥민기 작가는 한국 내 성소수자의 커밍아웃과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어낸다. 손운원 작가는 딸의 웅얼이에 비트를 접목한 사운드 작업을 새롭게 시작함과 동시에 거주 공간 안팎의 풍경 공유에 관한 작업을 새로운 형태로 선보인다.

2019년 연고가 전혀 없는 제주로 이주한 박유진 작가는 식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인간에게 보다 더 각



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고안철 작가는 2020년부터 인간 한 명 그리고 개 한 마리와 생활 중이다. 혈연, 혼연, 인간 중심의 전통적 가족상과 함께 독점 연애에 의문을 가진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전시관람은 사전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새탕라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고재만의

제주이길잡이

<310>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준네 골랐어, “으땡이가 어땡 똥 늦었는지 몰르켜게, 하르바님이 이 가난 뽕심 뽕신디. 나가 요 올렛질 우이77장만이라도 가 뽕사뽕겨. 아고 삼춘, 어디 값수광? 뽕은 먹음데강? 우리 으땡이가 하르바님이영 샘물통에 가신디 집이 안적 안 파부단 그디나 가보가후연 나삿수다.” 으땡이 골넨, “아고 누님마썸, 어땡 이디77장 읍데강?” 준네 골랐어, “으땡이야, 나가 느 쫓이레 샘물통터레 값져.” 하르바지 골넨, “준네가 하영 즈들아진생이로고, 하르뽕이 걸넨 뽕아보넨 후단보난 이추룩 늦었져. 서뽕마께라도 앓양가시민 제기 뽕진디게.”

* 제주어 풀이

*어땡 : 어땡게.
*응(이영,영,이응) : <어찌> 이렇게.(영영-이영이영, 이렇게 이렇게)
*응 늦었는지 몰르켜게 : 이러 늦는지 모르겠네.
*우이 장만이라도 : 위까지만이라도. *어디 값수광? : 어디 가요?
*먹음데강? : 먹었어요? *안적(안죽) : <어찌> 아직.
*가보가후연 나삿수다 : 가보려고 나왔어요.
*이디77장 읍데강? : 여기까지 왔어요?
*즈들아진생이로고 : 마음이 놓이지 않아.
*서뽕마께(뽕마께, 스뽕마께, 세뽕마께) : <이름> 빨래할 때 젖은 것을 두드려 뽕을 빼는 방망이.
*앓양가시민 : 가지고 갔으면. *뽕진디게 : 뽕 수 있었을 것인데.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나카무라 에미코 북콘서트 변종태 시인 초청 문학특강

제주출신 재일교포 2세 윤달세씨의 저서 '400년의 긴 길-임진왜란의 흔적을 찾아서'(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의 번역자 나카무라 에미코가 오는 15일과 16일 제주 독자와 만난다.

나카무라 에미코는 15일 제주시 덴저린맨션 2층 카페성지(오전 11시~오후 4시)와 16일 서귀포시 '인터뷰' 책방(오후 3시~5시)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 간 조선인들이 일본 각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일본 사회에 영향을 준 삶의 흔적을 상세하게 다룬다.

제주문학학교(운영위원장 박재형)가 도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 도민문학교' 작가초청 문학특강이 이달 30일 오후 5시 제주문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초청 작가는 1990년부터 '다충'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시집 '백시코행 열차는 어디서 타지' '니체와 함께 간 선물집에서' 등을 펴낸 변종태 시인이다.

변 시인은 '詩詩한 아웃사이더로 살아남기' 문학특강에서 계간문에 '다충'과 제주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시인으로서의 삶과 시세계 등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부 지원사업 잔여예산 신청자 모집

신청 자격

제주시 노형동, 연동, 해안동 소재 상업용 건물 소유자

호텔, 사우나, 공장, 병원, 마트, 창고, 냉장/냉동시설, 식당, 학원, 종교시설 등 전기다소비 시설 우대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75% 무상지원

- 고효율 최신 기자재 설치
- 전기요금 절감효과 탁월
- 경제수명 30년 성능보증



설치사례 : 서울사우나 태양광99kW



연료전지

설치비용 95% 무상지원

대상 : 도시가스 사용건물

- 전기 생산 및 온수생산
- 전기요금 및 급탕 연료비 절감
- 제주국제공항, 드림타워 운영중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슬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사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